KiRi 리포트 2018.5.21.
글로벌 이슈

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 현황 및 전망[1)]

홍민지 연구원

요약

2017년 전 세계 보험회사 M&A 거래는 총 480억 달러 규모로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% 증가함. 보험회사가 M&A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이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였지만 최근에는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,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. 다만, 검증 단계에 있는 인슈어테크 시장의 시장성 및 비즈니스 모델, 규제 불확실성, 상대적으로 취약한 IT보안 등은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기업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임.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부상으로 M&A를 통한 보험회사 사업구조 재편과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2017년 전 세계 보험회사 M&A 거래는 총 480억 달러 규모로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% 증가함

-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38.7% 증가하였으나 미주 지역은 12.2% 감소함
  - 미주 지역의 M&A 투자 금액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아시아 투자자들의 미주 지역 투자 감소이며 중국의 역외 M&A에 관한 규제 강화[2)]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
보험회사가 M&A를 추진하는 주요 목적이 기존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이었으나, 최근에는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음

- 전통적으로 보험회사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려는 목적으로 비핵심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핵심 사업부문을 인수함
- 최근 인슈어테크 기업들이 부상하면서 기존의 보험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선점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

– 미국 뉴욕의 P2P 인슈어테크 기업인 Lemonade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, 저렴하

1) EY(2018. 3), "Global Insurance M&A Themes, 2018"; EY(2018. 4), "Global Insurance M&A Themes, 2017"
2) 중국 금융당국은 100억 달러 이상 대형 해외 기업 M&A에 대한 승인 심사를 강화하는 등 역외 자본유출 규제를 강화함

고 투명한 보험료 정책 등을 경쟁력으로 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

- 한편, 인슈어테크 기업은 단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인수되어 거래 상대방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기업 투자에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
  - 보험회사는 벤처펀드를 설립하여 인슈어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전략적인 지분을 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

- 다만, 인슈어테크 산업의 시장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성이 검증단계에 있고,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과 인슈어테크 기업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IT보안 등은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임
  - 인슈어테크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며,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인슈어테크 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재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기록이나 재무실적 자료가 제한적임
  - 보험회사는 고객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리스크의 위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IT보안 시스템이 요구되며 인슈어테크 기업 또한 보험회사와 호환가능한 수준의 IT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

-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합하는 디지털 생태계가 급부상하면서 M&A를 통한 보험회사 사업구조 재편과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KiRi